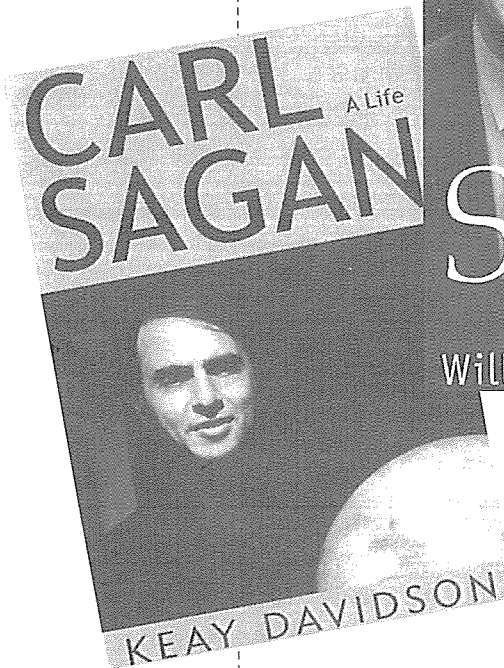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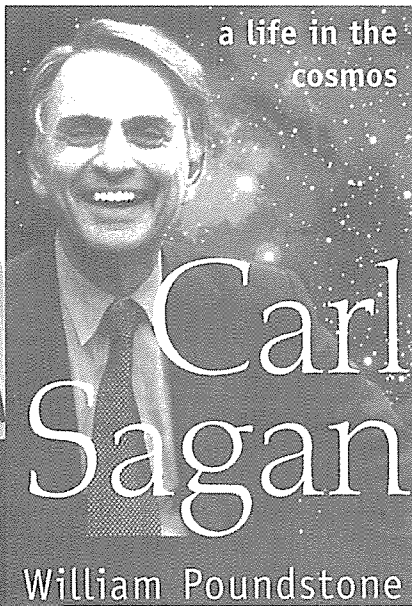


‘과학 대중화의 큰별’ 칼 세이건

로스앤젤리스 거주
의 과학저술가인
윌리엄 파운드스톤
이 펴낸 책, 「칼
세이건 : 우주에서
의 일생」의 표지



샌프란시스코 거주
의 저술가인 키 데이
비드슨의 저서, 「칼
세이건 : 한 인생」의
표지

영광의 세월

1934년 뉴욕에서 태어난 세이건은 1960년 시카고대학에서 당시만 해도 선구적인 우주생물학이라는 학문분야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버클리의 캘리포니아대학의 박사후연구과정과 하버드대학의 조교수를 거쳐 1968년 코넬대학의 종신교수로 정착했을 때 그의 나이는 아직도 34세에 못 미쳤다.

1961년 처녀작 「화성과 금성의 대기」로 시작된 그의 왕성한 저술활동은 1996년 사망할 때까지

27권의 저서를 남겼다. 그 중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세계 여러 나라에서 아직도 인기를 누리면서 출간되고 있는 ‘코스모스(우주)’가 있고 영화로 된 대담한 우주소설 ‘콘택(접속)’도 있다. 그의 부인(세번째) 앤 드러안과 함께 쓴 「에덴의 용 : 인간지능의 진화추측」은 1978년 풀리처상(일반논픽션 부문)을 받기도 했다. 1973년에 출간된 매력적이며 서사시의 멋까지 풍기는 그의 작품 「코즈믹 커넥션」은 베스트 셀러가 되었다.

그해 연말, 세이건은 TV방송의 심야프로에 두 번 출연하여 이름난 사회자 조니 카슨의 소개로 1천만명의 ‘투나이트 쇼’(미국 NBC TV계열의 토크쇼. 매회 다채로운 손님과 사회자인 조니 카슨의 인터뷰로 구성되어 미국에서 가장 인기있는 프로의 하나. 1954년 개시한 이 프로에서 카슨이 3대째의 사회를 맡고 있으나 3대가 모두 중서부 출신으로 평균적인 미국인의 심정을 잘 반영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다) 시청자들에게 선을 보였다. 이때 세이건은 한눈에 시청자들의 관심을 끌었다. 움푹 들어간 눈과 6척이 넘는(6.2척) 거구에 웅골찬 체격을 가진 세이건은 낱말의 뜻에 따라 억양을 조절할 수 있는 멋도 아울러 갖추고 있었다. 그의 완벽한 즉흥성과 사람의 마음을 끄는 비유는 시청자의 주목을 받기에 충분했다. 그는 신념을 갖고 말했으며 재치에 넘치고 위풍도 당당했다. 10여년동안 카슨과 가진 텔레비전 쇼는 26회에 불과했으나 세이건을 뜨게 만드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다.

1978년 로스앤젤리스 공영TV방송은 세이건에

**20세기의 대표적인 대중과학해설가인 칼 세이건(Carl Sagan)은
1996년 12월 병마로 사망할 때까지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과학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로부터도 톱 스타 못지 않은 인기와 사랑을 받았다.
세이건은 최근 잇따라 출간된 전기(傳記)를 통해 재조명되면서
또 다른 측면에서 독자들의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게 접근하여 13시간 시리즈인 ‘코스모스’ 제작에 착수했다. 카슨과 그의 처 린다(두번째 부인)는 로스앤젤리스로 옮겨 프로제작을 위해 2년간의 고된 세월을 보냈다. 이 프로의 첫번째 시리즈가 방영된 것은 1980년 가을이었다. 첫회부터 크게 히트한 이 시리즈는 인류의 10분의 1에 이르는 엄청난 많은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그러나 오만한 프로듀서와 세이건간의 불편한 관계는 서로 말을 나누지 않을 정도로 악화되었다. 서로간의 불신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감독은 어떤 장면에서 일부러 세이건에게 과장된 연기를 시켜서 시청자들에게 어리석게 보이게 만들기도 했다.

다양한 활동

저술과 출연활동의 수입으로 백만장자가 된 세이건은 휘하에 소규모의 헌신적인 스태프를 두어 그의 출판사업만 아니라 행성대기화학에 관한 연구까지 돕게 했다. 그는 연간 20여편의 연구논문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의 연구업적에는 금성에 대한 온실효과, 화성에 대한 먼지폭풍, 타이탄(토성의 최대 위성)에 대한 유기안개, 생명의 기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세이건은 또 핵전쟁이 오랫동안 지구의 기후를 냉동시킬 것이라고 주장하고 이른바 ‘핵의 겨울’이라는 가설을 내세우면서 강대국의 핵전쟁 정지 노력에도 한몫 거들었다. 이밖에도 강연과 로비활동을 통해 반전, 환경, 인권문제를 위해서 활동영역을 넓혀 갔다.

그러나 세이건은 권위있는 미국 과학아카데미(NAS) 회원 선출에서 탈락하는 쓰라린 수모를

겪어야 했다. 1992년 NAS는 59명의 신규회원을 선출하면서 세이건을 탈락시킨 것이다. NAS는 지난 20년간 1천명 이상의 과학자들을 새로 회원으로 선출했으나 회원승인이 부결된 사람은 세이건 외에 단 한명뿐이었다. 부결이유는 세이건의 과학연구 공헌도가 낮다는 것이었으나 그를 아끼는 몇몇 NAS 회원들은 세이건이 NAS 회원이 될만한 충분한 업적이 있었으나 과학 대중화사업에 너무 성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과학계에서는 일반적으로 과학 대중화와 관련된 저작이나 활동을 하는 동료 과학자들을 멸시하거나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이유는 첫째, 과학 대중화를 위한 글을 쓰자면 非(비)기술적인 언어를 사용하여 1인칭으로 이야기하고 되도록 간편하게 써야 하지만 과학계는 이렇게 학술적인 글쓰기의 규칙을 위반하는 동료에게 반감을 갖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며 둘째, 과학자도 인간이기 때문에 인기있는 대중과학해설가들이 사회에서 받는 화려한 주목에 질투를 느낀다는 것이다.

세이건에 따르면 “폴리브덴원자로 된 초정밀구조와 같은 특이한 연구에 평생을 바치는 어떤 과학자가 자기업적을 세계에서 단 3명밖에 없는 폴리브덴 전문가 외에는 모두 외면한다고 할 때 기자들이 외계생명체 존재의 가능성을 알리고 나에게 구름 떼처럼 물려드는 것을 보고 질투가 나고 울화가 치미는 것은 자연스런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 과학아카데미는 세이건에게 최고상인 공공복지메달을 주면서 “과학의 경이와 즐거

움을 것처럼 성공적으로 널리 전달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고 격찬을 아끼지 않았다.

‘여난(女難)의 상’?

세이건은 세번 결혼하여 다섯 아이를 두었는데 1950년부터 2000년까지 매 10년마다 아이가 한 사람이 태어난 꼴이다. 그렇다면 일부 사람들의 주장처럼 세이건은 여색에 빠진 사람이었을까? 분명한 대답은 ‘아니다’라는 것이다. 그의 친구들은 독신자 세이건이 여성과의 교제를 좋아한 것은 사실이지만 ‘약탈자’는 아니라고 말하고 있다. 세번의 결혼은 모두 정열과 애정과 지적인 교제로 이루어진 것이었다. 또 이들 세사람의 여성은 모두가 칭찬을 받을 만한 개성을 갖고 있었다.

세이건의 첫번째 결혼은 그가 23세이던 대학원 학생시절 린 알렉산더와의 만남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의 결혼생활은 7년만에 끝났고 그들 사이에서 두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세이건은 자기를 위해 너무 많은 시간과 관심을 요구했기 때문에 린의 뛰어난 정신적인 재능과 학문적인 높은 야심에 대해 따뜻한 배려를 할 여유가 없었다. 마침내 린은 세이건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린은 이혼한 뒤 우리의 세포 속의 핵심세포기관은 오래 전에 박테리아의 공생물이었다는 것을 밝힌 역저를 펴냈다. 뒷날 재혼하여 성을 마거리스로 바꾼 린은 저명한 세포생물학자 및 교수가 되어 미생물 생태학의 권위자로서 주로 생물학에 관한 참신한 대중서적들을 여러권 저술했다. 그녀와 자주 책을 함께 쓰는 공동저자는 타고난 글재주를 갖고 있는 그의 첫 아들인 도리언 세이건이다. 그러나 세이건의 자식들 중에서 이혼으로 가장 큰 상처를 입은 것은 철학자인 도리언이었다. 린은 이혼한 뒤에도 세이건과의 우의를 지속하면서 “이혼은 결혼보다 더 성공적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두번째 부인인 린다 솔즈만은 뛰어난 매력을 지닌 보스턴의 미술학도였으며 세이건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이들은 1969년 결혼했다. 뱃지에 그린 그녀의 고전적인 누드그림은 1972년 외계로 향하

는 2기의 파이오니아 우주기에 붙었는데 장차 성간 비행을 하는 미지의 생명체에게 인류의 모습과 위치를 알리기 위한 것이었다. 1970년 이들 사이에는 아들 니콜라스가 태어났고 1976년 일가는 유명하고 부유해지면서 코넬대학이 있는 뉴욕주 이타카로 돌아왔다. 세이건은 1년 뒤 다시 두번째 부인과 헤어졌다.

세이건과 세번째 부인 앤 드러안과는 서로를 확실히 알기 전에 이미 사랑에 빠졌다. 1977년 이들은 보이저 우주선이 가져갈 영상과 음악기록을 만들기 위한 공동과제를 협의하려고 전화통화를 하다가 서로간의 애정의 확인도 하기 전에 결혼하기로 합의했다. 이 세번째 결혼생활은 세이건의 죽음까지 계속되어 딸 사사와 아들 샘을 두게 되었다. 이 결혼은 세이건에게 최고의 동반자를 제공했고 그녀는 행복하고 즐거운 생활의 길잡이가 되었다. 세이건은 희귀한 골수간세포종양인 척수이형성(脊髓異形成)으로 2년간의 투병생활을 하다가 그의 마지막 저서가 인쇄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1996년 12월 20일 사망했다. 이 책(「악령에 사로잡힌 세계 : 어둠 속의 촛불로서의 과학」)은 읽기 쉬운 에세이로 구성되어 있으며 어린 시절의 회고와 반성, 관용과 날카로운 논쟁 그리고 우리시대의 어리석음과 변덕스런 공상의 분석 등이 실려 있다.

세이건이 죽은 뒤 그의 추도예배는 그가 오랫동안 관여하고 있던 제트추진연구소가 있는 캘리포니아주의 파사데나, 이타카, 그리고 뉴욕에서 가졌다. 파사데나 모임에는 두번째 부인이었던 린다가 참석했고 뉴욕대성당에서 열린 추도예배에서는 세이건과 종교계 인사간에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에 대해서는 의견을 달리하지만 지구를 어떻게 보살피어야 한다는 데 관해서는 강력하게 힘을 모으기로 합의”함으로써 오래 전부터 ‘휴전’을 지켜 온 남녀인사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교어 부통령은 따뜻한 말로 그를 추도했고 이어 세이건의 둘째 아들 제리미 세이건 그리고 그의 마지막 부인인 앤 드러안이 아버지와 남편을 기렸다. ①7